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아베가 제정신이 돌아올때까지’

日 수출보복 도내에서도 규탄 목소리 ‘확산’

마트·일반상가·시민단체·정치권 등도 동참
전주시의회도 日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예고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에서 일본 정부의 전례 없는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시·도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상품을 팔지 않는 마트부터 일본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점포, 정치권 및 시민단체까지 일본 정부규탄에 합세하고 있다.

지난 19일 중화산동에 소재한 1번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는 일본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들먹이며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순간부터 일본 차의 주차를 막는 문구를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사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들먹이면서 부당하게 진행하는 경제보복에 화가 났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다가 일본 차의 주차를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중화산동2가에 소재한 유명마트는 일본 브랜드의 술과 담배를 진열대에서 치웠다.

그간 이 마트는 일본 담배 20여종과 아사이 등 일본 맥주를 판매해 왔다. 이 마트는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수출규제를 계속하자 일본 브랜드의 맥주와 담배를 모두 치웠다.

마트는 가게 앞에 현수막과 가게 안에 거치대를 설치해 일본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유명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경제 침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한창인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명마트에 일본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적하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복회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전 북도청과 전주시청, 광복회 전북도지부 사무실 등에 일본제품의 불매운동

을 촉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복회 전북도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경제보복 규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당장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저히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난 16일에는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논의·선정하기도 했다.

박병설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기 힘들지만 시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김철승 예수병원장
TV 인터뷰 프로그램 출연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이 지난 11일 JTJ 인터뷰에 이어 18일 MBC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11일 JTJ 인터뷰 프로그램 ‘클릭 이시람’과 18일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 출연해 예수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취임한 소감을 밝혔다.

두 TV 방송사의 각각 30분간 인터뷰에서 김철승 병원장은 사랑의 인술로 환자중심의 병원을 추구하는 예수병원의 경영 구상과 암센터 건축, 심평원의 다양한 1등급 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선교와 봉사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예수병원의 현안과 의사로서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김철승 병원장의 인터뷰 JTJ ‘클릭 이시람’은 21일 오전 8시 10분 방송됐으며, 전주MBC ‘초대석 반갑습니다’는 28일 오전 7시 30분, 30일 낮 12시 55분 2회에 방송되고 본 방송 후 유튜브 전주mbc 오리지널 채널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아름다운 우정 나는 재능기부 연주

성음악 연주가 양도연씨, 전북대병원 입원 중인 친구 위해

“아픈 친구를 위해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지난 18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본관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점심 식사를 마친 환자와 내방객을 위한 천주교전주교구 가톨릭 윈드앙상블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음악 연주가 양도연(67세) 씨의 피아노 연주가 펼쳐졌다.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성음악 연주가 양도연은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는 친구의 청을 받아 흔쾌히 재능기부 연주를 결심했다.

전북대병원 본관 로비에 놓여진 그랜드피아노는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이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기증한 것으로, 병원 측에서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일상에 힘입을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재능기부 연주를 펼친 양도연씨는 로마 산타세실리아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세종대 음악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정년퇴임 했다. 현재는 성음악 연주 활동을 통한 연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도연씨는 입원 중인 40여년 지기 친구를 위해 피아노 뿐만 아니라 색소폰 연주까지 곁들이며

위로와 힐링을 선물했다.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연주는 친구뿐만 아니라 현장에 모인 환우와 내방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큰 갈채 속에 마무리 됐다.

양씨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을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피아노 앞에 섰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주회 전 과정을 스마트폰 영상에 담으며 음악을 들은 친구 이서구 씨는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준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며, 저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인 환우들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에서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기 위한 ‘일상에 힘입을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에 참여할 재능기부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우리 학교, 개교 72년 이래 최대 위기” 전북대 학생들, 잇단 교수 비리 규탄

전북대학교가 최근 교수들의 잇따른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 학생들이 지난 19일 관련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대 교수 비리 진상규명 학생위원회는 이날 오후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비리 교수를 즉각 보직 해임시키고 대학에서 방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사태의 심각성과 위중함이 짙어지는데도 대학본부는 미온적 태도로 교수들의 비리를 묵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총학생회를 비롯해 총동아리연합회, 16개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진상규명 학생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생위는 이날 “최근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안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대학은 교수들의 각종 비리 사건으로 ‘개교 72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대 교수 비리 진상규명 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학 본부까지 행진한 뒤 본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총장실에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북대는 교수들의 갑질과 사기, 강요, 추행, 음주운전 사고, 논문에 미성년 자녀 등재, 국가시험 대리출제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져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썼다. /장은성 기자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

전주시, 올 하반기 총 54억원 투입 덕진수영장 등 보수

시설이 낡아 이용하기 불편한 각종 체육시설들이 보수된다.

전주시는 국비 등 총 54억원을 투입해 빙상경기장, 덕진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덕진수영장 등 7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완산수영장을 보수한데 이어 총 8억원을 투입해 지어진지 28년 된 덕진수영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풀장의 실내 바닥을 보수하고, 급수배관과 기계실 드레인 밸브, 급수밸브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7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냉난방시설이 없는 덕진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총 9억여 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설치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전북대 대학로 주변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북대 대학로에서 인근 주민과 대학로 상인회장, 전주화훼인연합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대 대학로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토기화분 52개를 설치하고, △순남소극 △호스타 △수국 △아미초 등 숙근초와 계절꽃 350본을 식재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전주화훼인연합회(회장 오영열), 참여주민과 함께 꽃거리 관리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시에서 꽃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화분을 설치하고, 전주화훼인연합회는 주민들에게 꽃과 관련된 컨설팅을 담당하며, 주민들은 직접 꽃을 구입해 심고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효철 기자

취업 꿈 키우는 면접 정장 ‘호응’

전주시 ‘청춘꿈꽃장’ 이용자 절반 이상 ‘취업 성공’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춘꿈꽃장’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청춘꿈꽃장 사업은 만18세부터 34세 사이의 전주시 거주 청년구직자에게 취업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 주고 면접처에 맞게 맞춤형 코디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장 보유수, 전문성 등을 갖춘 2곳의 전문매장을 선정해 청년꿈꽃장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면접정장을 빌리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총 대여횟수인 320회를 모두 채워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면접정장을 빌린 청년

중 52.3%가 실제 취업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만족’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대여횟수 △매장 직원의 전문적인 면접코디 △좋은 재질의 정장대여 등을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손꼽았다.

시는 보다 많은 취업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면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주영광 씨(27)는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하다보니 사이즈나 정장의 질이 걱정 됐지만 값비싼 정장을 내 몸에 딱 맞게 수선까지 해줘서 기분 좋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며, “필기시험을 잘 보지 못했으나 면접을 예상보다 잘 봐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상반기 징수실적 최우수

전주시가 전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에 이어 3회 연속으로 거뒀던 쾌거다.

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 산하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처분과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난해보다 378억 원이 증가한 3121억 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과 체계적인 징수기법 토론회를 실시해 전문화와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양식 등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협조와 자진납부 등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